

# 숲 속 옷놀이

개발자 : 김한나, 신혜선

활용대상	유아( ) 초등학생( ✓ ) 중·고등학생( ✓ ) 일반인(성인)( ✓ )		
목적	전통 놀이를 자연과 접목하여 숲에서 체험하며 자연과 우리나라 놀이문화를 학습		
활용가능시기	봄( ), 여름( ), 가을( ), 겨울( ), 구분없음( ✓ )		
준비물	옷, 말, 옷판, 돛자리		
제작비용	10,000원	운영 소요시간	30분
평가 (5점만점으로 별표 표시)	난이도	흥미	교육성
	☆☆☆	☆☆☆☆☆	☆☆☆☆☆
	편리성·이용성	제작관리 용이성	
	☆☆☆☆☆	☆☆☆☆☆	
개발방법	창작( ✓ ), 응용( )	참고자료 (서적 및 인터넷사이트)	
향후 발전방향	• 국립공원과 야생동물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전통놀이를 접목한 숲 속 옷놀이를 통해 전달한다면 어렵고 낯선 지식을 쉽고 재미있게 교육할 수 있다.		



1. 적당한 크기의 나무를 잘라  
말을 만든다.



2. 말에 붙일 귀여운 야생동물을  
출력해 오린다. (국립공원의  
특성에 맞는 다양한 캐릭터)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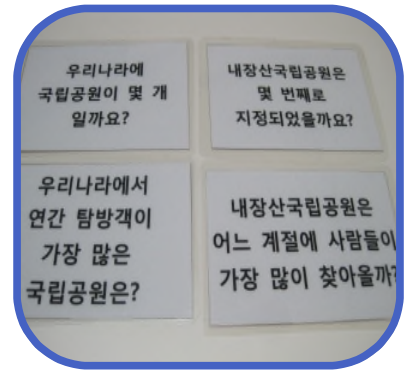
3. 오려놓은 야생동물을 준비해 둔  
말 위에 붙인다.



4. 적당한 크기의 나무를 세로로  
이등분하여 윷을 만들고 끝을  
다듬어준다.



5. 몇 가지의 함정을 포함한  
윷판을 만든다.



6. 함정에서 사용할 퀴즈를  
만든다. 국립공원 관련 내용이나  
프로그램 성격에 맞춰 변경이  
가능하다.

• 숲속 윷놀이는 해설프로그램이나 찾아가는 국립공원 프로그램에서 다양하게 이용할 수 있다. 야생동물 보호라는 기본주제 이외에 질문을 통한 다양한 주제로의 응용이 가능하다.

<놀이방법>



**활용하기**

1. 기본 윷놀이 규칙대로 게임을 진행한다.
2. 물음표에 걸리면 퀴즈를 맞춰야 그대로 진행할 수 있으며 퀴즈를 맞추지 못하면 국립공원 심볼이 있는 자리로 가야한다. (국립공원에 대해 알기위한 함정)
3. 추락주의에 걸리면 맨 처음으로 돌아가야 하고, 낙석주의에 걸리면 한 번 쉰다.  
※ 야생동물 보호 및 추락주의 낙석주의는 국립공원 NPIP 참조
- 게임에 관련된 룰은 각자의 특성에 맞게 바꿀 수 있다.



- 윷놀이 규칙을 알고 있으면 재밌는 게임을 즐길 수 있다.
- 게임에 승자와 패자를 위한 소정의 상품을 준비하면 게임의 만족도를 더 높일 수 있다.